

광양 희망도서관 열람실 부재 불편

어린이 전용... 인근 학생·주민 하소연

“주변 학생들 위한 시설개편” 목소리

광양여고에 재학중인 김 모양(17)은 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희망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희망도서관이 어린이 전용 시설이다 보니 공부 할 수 있는 열람실이 갖추어 지지않았기 때문이다.

광양시 어린이 전문 희망도서관이 중고생들도 이용이 가능한 일반 도서관의 기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광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어린이들이 읽고 놀고

함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광양 희망도서관을 개관했다.

예산 100억이 투입된 희망도서관은 연건평 2,132㎡의 규모로 1층 영·유아자료실, 2층 어린이자료실, 3층 꿈나무극장, 배움교실, 창작교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희망도서관이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다 보니 시설은 좋지만 주변 일반인이나 중·고생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공부 할 수 있는 열람실이 없어 인근 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희망도서관에 열람실을 추가로 확보하면 인근 광양 여고를 비롯 4개 학교 학생들과 주변 주민 등 일반인들도 이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시내에 중앙도서관이 위치해 있지만 희망도서관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 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 이 모씨(37)는 “인근에 많은 돈을 들여 큰 규모의 도서관이 문을 열었지만 기대와 달리 어린이 전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열람시설을 갖추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차피 어린이들과는 이용 시간도 다르고 주변에 중고등학교도 있는 만큼 건물 한층 정도는 수험생들의 용도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도서관 한 관계자는 “희망도서관은 어린이 특화 도서관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이며 2층에는 일반인들도 이용 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다”며 “주민들의 바램은 알지만 일반도서관으로 시설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조기철 기자

보성 민·관 합심 ‘뺏다방’ 추방

본지보도...16일간 릴레이 집회로 이뤄낸 성과

〈속보〉 지난 3일자 본지 “보성 노인들 상대 ‘뺏다방’ 주의보” 기사와 관련 보성군 민·관이 합심, 지역노인들에게 미기상품으로 비불교적 위폐장사를 한 일명 ‘뺏다방’을 추방했다.

1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뺏다방 추방은 보성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보성군 뺏다방 추방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지의 보도와 함께 릴레이 추방 집회를 여는 등 전방위로 강력 대응한 결과다.

뺏다방은 보성읍내에 유사 포교당을

열고 지역노인들에게 조상 천도제 명목으로 위폐장사를 하며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번 뺏다방 추방은 지역현안에 민·관이 합심하여 대처한 모범사례로서 군민들에게 상생과 협력의 좋은 미담이 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뺏다방 추방은 경찰과 사회단체 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상거래로 군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민·관이 더욱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기지수첩

고흥군의회-집행부, 상생하라

고흥군의회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으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2일간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404억원 증대용



진준연
동부취재본부

피해 복구 및 주민 생활 민원 등에 쓰일 자체사업 240억원의 예산편성액 중 18억원만 남긴채 93%인 222억원을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다수당의 황포·집행부 길들이기, 대표적 균형 발목잡기 등 온갖 비난과 주민항의가 빚어지고 있다.

고흥군의회는 “대규모 사업장에 편성된 예산을 군의회의 의견 수렴과 사전 설명회 등 공문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감액 재편성 제출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삭감 이유를 밝히고 있다.

와 개혁을 외치며 지난 달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6개 읍·면을 순방하면서 기존의 관행과 관례를 깨는 나홀로 파격행보를 보여왔다. 관례대로라면 순방을 하면 해당 지역구군의 원도 행차서 오찬도 함께 하고 기관단체 방문도 같이 했어야 했다.

송 군수는 이러한 부분을 생략한 채 하나의 행정행위로 판단, 독자적으로 움직여왔다. 군의원들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소외받았다고 불만이 쌓인 것이다. 고흥군의회 12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2명이 평화당, 1명은 무소속, 군수는 평화당이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이다. 군수는 평화당인데 군의회는 민주당 일당으로 짜진 것이다. 민선 6기에는 같은당 끼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절을 즐기며

반면 집행부는 “민선 6기 1차 추경 때 군예산안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국비가 아닌 군예산으로만 짜여져 확정된다는 중앙부처 질의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군예산은 아끼고 일부 계획을 변경 추진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50억원 지원 답변까지 얻어놓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일 주민들과 16개 읍·면 이장단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강하게 항의를 했다. 또 주민들은 조만간 군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의 입장 표명에는 웅색한 면이 엿보인다. 내막을 알기 위해 지난 달로 거슬러 올라가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이번 갈등의 발단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12년 동안 한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 .모의원은 ‘팔말이’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유유상종해 왔었다. 하여 이번 건은 공익보다 감정을 앞세운 측면이 크다.

군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선출직은 모두 공인이다. 공익을 외면하고 사적 감정에 사로잡혀 갈등의 단초가 됐다던 공인으로서 자격상실로 볼 수 없다. 군의회는 다수당의 황포로 비호수 있는 힘겨루기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당리당락보다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수레의 양축이 됐으면 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은 원인이 어쨌든 결국 군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집행부 또한 노련한 정치력과 지혜로운 정무적 안목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민선 7기 새로운 고흥호의 원만한 항해를 기대한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현복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문제 해결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양제철소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생활 균형과 인구 문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동 광양제철소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겠다”며 “저출산과 인구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송귀근 고흥군수는 취임후 변화

여수 디오션리조트

신달순 대표이사 취임



여수 디오션리조트 대표이사에 신달순 전 옹평리조트 사장이 취임했다고 10일 리조트측이 밝혔다.

지난달 17자로 취임한 신달순 대표이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옹평리조트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복합 소풍마을을 운영하는 신세계 계열사인 센트럴시티 대표이사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의 대표이사를 겸직했다.

신 대표이사는 “관광의 명소인 명품 해양레저도시 여수의 디오션리조트 대표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디오션리조트가 여수시의 관광정책에 발맞춰 단순히 기존 시설제공 서비스 차원이 아닌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여수지역 관광레저부문의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시장,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활력 증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 ‘워라벨’로 인구문제 해결 나선다

포스코 광양제철과 인구활력증진 업무협약

광양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손잡고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광양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시장,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활력증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스코 광양제철

소는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통해 직장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출산·육아 부담 경감 등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속 직원의 지역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아동전문병원 유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들고,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현복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문제 해결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광양제철소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일·생활 균형과 인구 문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동 광양제철소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겠다”며 “저출산과 인구문제 해결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고흥 ‘작은영화관 기획전’ 11편 상영

고흥군은 고흥작은영화관이 ‘작은영화관 기획전’에 선정돼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동안 11편의 영화를 무료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

화진흥위원회가 주최하고, 작은영화관 기획전사업단과 고흥작은영화관이 주관하며, 총 11편의 영화를 22차에 걸쳐 무료 상영한다.

상영작은 ▲매지유폴 ▲몬스터섬의

비밀 ▲아기돼지 3형제와 콩푸랜드 ▲피쉬프렌즈:알록이와 신비한 모험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팬보컬즈 ▲피의 연대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무간도 ▲뮤지컬 홀리데이 인 ▲페니 핀처(베리어 프리) 등이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클릭! 고흥 소식



여수 지적재조사 설명회

여수시는 최근 내년도 지적재조사를 앞두고 사업지구인 화양 옥적, 선월 반월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양 옥적리 마을회관, 선원동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설명과 사업지구 선정·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보성 예비 귀농귀촌인 2차 팸투어

보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지역 귀농귀촌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보성군 일원에서 농촌 문화체험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 1일차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일차에는 농장을 방문, 작물 재배 방법과 농장 경영에 관한 체험을 통해 전반적인 농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광양시 자생란회 후원금 기탁

광양시자생란연합회는 최근 ‘십시일반 사랑(애) 냇강고’에 후원금으로 5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십시일반 사랑(애) 냇강고’ 사업을 비롯한 우리 동네 꿈나무 소원 들어주기, 집수리 지원, 생필품·의뢰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양시자생란연합회 김경성 대표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구례-전국공노조 구례지부 단체교섭

구례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지부는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순호 군수와 김영수 노조지부장 등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견례’를 갖고 ‘2018년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대표 교섭위원의 인사말, 교섭절차 합의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구례군과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실무교섭을 통해 양측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